안테나

인천시,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인천시가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1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설치해 운영한다. 봄철은 강수량이 부족해 산불 대응에 불리하고 올해 기상전망도 평년과 비슷하게 건조한 기상여건이 예측돼 산불 위험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적으로도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완화되면서 날씨가 풀리는 봄철에 인근 산림을 방문하는 등산 및 나들이객 등 야외활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기상, 사회적 여건을 감안해 시는 봄철 산불조심 기간 동안 가용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산불 방지 및 진화에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각 군 · 구에서도 산불감시인력 투입과 산불상황관제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 산불정보를 신속히 파악해 통합적인 산불진화 지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안종삼 기자

옹진군,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대상자 모집

옹진군보건소가 1일부터 지역사회 만성질환 이환율 감소 및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2023년 모바일헬스케어사업' 대상자를 선착순으로 110명 모집한다.

'모바일헬스케어'란 혈압 · 혈당 등 건강위험요인을 가진 성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폰과 손목형 스마트밴드(활동량계)를 이용해 6개월간 의사 · 간호사 · 영양사 · 운동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는 사업으로 대상자는 기간 중 3번의 검진을 받게 된다.

옹진군은 도서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헬스케어팀이 체액균형, 세포영양, 정밀 체성분 측정이 가능한 초정밀 체수분 측정장비, 이동 혈액검사기, 혈압계 등 최신 장비를 갖추고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는 출장검진을 실시한다.

모집 대상은 만 19세 이상 군민 중 스마트 폰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건강위험요인(혈압 · 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낮은 HDL-콜레스테롤)을 1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민 또는 직장인이며 다만 고혈압 · 당뇨병 등 약복용자는 제외된다.

조숙녀 옹진군 건강증진과장은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을 통해 군민 및 직장인들의 건강생활 실천을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계양구, 안심식당 확대 운영

계양구가 외식업계의 위생적이고 선진화된 식문화 보급 확산을 위해 올해 안심식당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안심식당'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음식 덜어먹기 실천 △위생적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쓰기 등 식사문화 3대 개선과제 이행, 업소 내 손소독제 비치, 주기적 환기 소독 등 생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음식점이다.

구는 지난 2020년을 시작으로 지역 일반 · 휴게음식점 460여 개소를 안심식당으로 지정했고 올해는 60개소 이상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안심식당 지정으로 구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한 외식환경이 조성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홍일 기자

중구 용유동, 어르신 이·미용 서비스 제공

중구 용유동 행정복지센터와 마을복지계획추진단은 지난달 31일 지역에 위치한 그린미용실 · 헤어뽀끌레미용실과 어르신의 이 · 미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해 용유동의 마을복지계획의 일환으로 제안됐으며 앞으로 1년간 고령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상생활이 제한되는 만 8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1만원 커트 이용권을 전달해 협약된 미용실 2개소에서 이 · 미용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현종 단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사회 복지 공동체 조성을 위해 만 80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이 · 미용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미적 욕구도 충족시키고자 체결했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종문 동장은 "평상시 업무가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사업에 참여해주신 협약 미용실 원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을 위해 민 · 관이 함께 합심해 따뜻한 용유동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안종삼 기자

지역언론 대상 지원사업 공모

인천시, 17일까지 온라인 접수
총 3억 범위에서 콘텐츠 개발

인천시가 지난해 이어 올해도 지역언론의 역량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인천시는 1일 '2023년 지역언론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공모 절차를 거쳐 총 3억원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언론 지원사업은 '인천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를 근거로 지역언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뉴스 유통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지난해 처음 시행한 사업이다. 지난해는 공모와 심의를 통해 신청사업 중 6개 언론사, 9개 사업을 선정해 지원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돼 있거나 지역 본사 · 주사무소를 둔 지역신문, 인천시에 등록된 인터넷신문, 인천시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역방송 및 종합유선방송이다.

일정 지원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의 협업 사업도 가능하다.

지원사업은 콘텐츠 개발 지원(기획취재 보도, 프로그램 제작), 경쟁력 강화 · 공익성 구현 지원(취재편집, NIE교육, 미디어 역량강화, 공공저널리즘 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지원사업에 관심 있는 지역언론에서는 사업계획을 담은 신청서를 작성해 증빙자료와 함께 오는 17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모든 보조금 사업의 신청과 집행 · 관리가 '보탬e'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언론 발전위원회와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사업을 선정하게 된다.

사업비는 사업규모와 내용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사업비 중 일정 비율을 언론사가 자부담해야 한다.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정산 및 평가를 진행하게 되며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했거나 낮은 평가를 받은 경우 보조금 환수 또는 향후 사업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유준호 시 공보관은 "인천시의 지역언론이 시민들에게 특색있고 차별화된 좋은 콘텐츠를 많이 제공하고 미디어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종삼 기자

인천예술인 종합건강검진지원 신청 접수

인천문화재단, 1천명 목표
매월 1~15일 온라인 접수

(재)인천문화재단 인천예술인지원센터는 이달을 시작으로 매월 1~15일까지 '인천예술인 종합건강검진지원'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본 사업은 예술인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비 부담해소를 통해 안정적 창작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 접수일 기준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인천 연고 예술인(주민등록 출생년도 기준 홀수년생)이며 예술활동증명 만료자는 갱신 완료 후 지원신청 가능하다.

단 경력중단 예술인(질병, 육아, 임신, 출산, 가족돌봄, 군대 등의 사유)의 경우, 최근 10년(2013년~현재)내 인천에서 1회 이상의 창작활동 실적과 경력중단 증빙 자료로 예술활동증명의 대체가 가능하다.

'인천예술인 종합건강검진지원'은 예술인 1인 기준, 30만원 범위의 검진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 중 해당 의료기관의 제공 범위(위 · 대장 내시경, 초음파, CT, 혈액검사, MRA/MRI 등)에 따라 검진 항목을 선택할 수 있다.

검진 비용은 지원 선정자의 사전 지출 없이 재단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한다.

단 제공하는 검진프로그램을 제외한 본인의 추가 검진 항목(조직검사 · 용종제거 등) 진행시에는 자부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올해는 예술인의 보다 나은 접근성과 편의성을 위해 사업의 확장과 개편을 시행했다.

협력 의료기관은 2개 기관에서 7개 기관(검단 탑 병원 · 나은병원 · 부평세림병원 · 아인여성병원 · 인천시의료원 · 진헬스건강검진센터 ·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으로 확대했으며 연간 1000명의 예술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 규모가 반영됐다.

또한 모든 지역 예술인의 균등한 검진 기회를 제공하고자 국가건강검진과 동일하게 출생년도 기준 홀짝제를 도입했다.

안종삼 기자

(재)인천문화재단 인천예술인지원센터는 이달을 시작으로 매월 1~15일까지 '인천예술인 종합건강검진지원'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사진=인천문화재단>

정보취약계층 디지털 격차 해소

인천시, 27억원의 사업비 확보
키오스크 주문, 스마트폰 활용
대중교통 온라인 예약 등 교육

인천시가 디지털기기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고령층을 비롯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2023년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2억3000여 만원이 증가한 27억원 가량의 사업비를 확보해 시민 누구나 쉽게 디지털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역량부터 심화 교육까지 수준별 맞춤형 과정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 인천시는 본 사업을 통해 약 2만 8400명의 시민이 혜택을 받았으며 이중 60대 이상 어르신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은 비대면 온라인 수업, 도서관 · 복지관 등 디지털배움터에서의 집합교육, 도서 지역 등 상대적으로 교육 기회가 부족한 시민에게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역이나 교육 대상 등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다.

올해는 시민 맞춤형 교육을 확산시키기 위해 도서관 · 복지관 등 공공기관 외에 비영리 목적의 민간 시설을 디지털 배움터로 확보하는 등 지역 밀착형 교육 장소를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정해진 장소나 시간에 교육받기 어려운 도서 · 산간 지역에 사는 시민들을 위해 에듀버스 및 이동 부스 등을 이용해 지역별 찾아가는 교육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손혜정 시 정보화담당관은 "단순히 디지털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이 아니라 무인기기(키오스크) 주문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터넷 뱅킹, 대중교통 온라인 예약 등 디지털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 등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고 도움이 되는 체험 · 실습형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며 "모두가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종삼 기자

'청년 예술인 육성·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유경희 인천시의원 대표발의
청년 예술인 지원 기반 마련

인천지역 청년 예술인들의 활발한 활동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경희(민 · 부평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1일 밝혔다.

유경희 의원은 "인천지역 청년 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기성예술인에 비해 경력이나 활동 기반이 취약한 청년 예술인들이 지원사업에서 소외되지 않고 문화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인천의 청년 예술인은 지난해 10월 기준 3732명으로 인천 총 예술인 6677명의 55.9%로 다른 연령층 대비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하지만 인천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 청년 예술인은 인천시의 예술인 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지원사업 참여 경험이 적으며 전반적인 인천시 예술정책에 대한 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회의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사업 △청년예술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유경희 의원은 "인천시가 정책사업을 수립할 때에도 일부 특정인들만이 정책이나 공모사업의 대상이 되거나 중복선정돼 다수의 청년 예술인들의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세심하게 수립해야 한다"며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청년 예술인들이 인천시 지원정책의 부재로 인해 어려워진 현실 속에서 그들의 예술적 꿈과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인천시가 관련 기반 마련에 앞장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종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1월의 인천세관인에 인천세관 황재민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 사진 왼쪽부터 임광수 · 조주현 · 오하나 관세행정관, 김재일 세관장, 이자미 · 이동원 · 황재민 관세행정관. <사진=인천본부세관>

'1월의 인천세관인'에 황재민 관세행정관 선정

인천본부세관, 항공화물서
메트암페타민 약 4kg 적발

인천본부세관은 1월의 인천세관인에 인천세관 황재민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

황재민 관세행정관은 메트암페타민 적발사례가 없었던 항공 일반 수입화물에서 X-Ray검색으로 미세 이상 음영을 포착해 구슬모양의 광석안에 3겹 포장해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3988.45g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여행자통관분야 유공자에 정보분석으로 우범여행자를 선별해 캐리어 바닥에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6.3kg 적발에 기여한 임광수 관세행정관이 △물류감시분야 유공자에 공항 주요시설물에 대한 폭발물 대응 대테러 기관합동훈련을 실시한 조주현 관세행정관이 △심사분야 유공자에 다국적 소프트웨어 업체에 새로운 과세논리를 이끌어 75억원 상당의 세수 증대에 기여한 이자미 관세행정관이 △조사분야 유공자에 135억원 상당의 중국산 제모기 23만점을 한국브랜드로 원산지를 세탁한 업체를 검거한 오하나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해 포상할 예정이다. 안종삼 기자